다산포럼

조영철

세계화 전략의 성공 추진 조건

세계화에 대한 평가는 긍정론과 비판론이 크게 엇갈린다. 그러나 세계화는 일도양단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세계화를 평가하려면 우선 세계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말부터 제 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기간을 제1차 세계화라 하고,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 중인 세계화를 제 2차 세계화라고 부른다. 1차 세계화는 상품·노동·자본의 국제 이동이 활발했던 반면, 현재의 세계화는 상품과 자본의 이동만 활발하고 노동 이동은 제한적이다.

즉 오늘날의 세계화란 상품 이동의 자유를 말하는 자유무역과 자본 이동의 자유를 뜻하는 금융자유화·금융세계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계화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자유무역과 금융자유화란 두 측면의 세계화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역개방이나 자유무역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실증연구들을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자유무역의 세계화 흐름을 적극 활용한 나라인 한국, 대만, 중국, 인도 등은 모두 경제발전에 성공한 반면, 자유무역의 세계화 흐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빈곤 문제가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못했다.

금융자유화·자본자유화의 효과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는 자유무역보다 덜 우호적이다. 1970년대 말 이후 금융자유화·자본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멕시코, 스페인, 뉴질랜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자본유입에 의한 호황 이후 대규모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겪었다.

제1차 세계화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히 지적했던 존 메이나드 케인스(John M. Keynes)도 자유무역은 안정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금융시장은 군중심리의 영향을 받는 불완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 안정을 위해 국가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욱이 케인스는 국가가 국제 자본흐름을 규제하지 않으면 자본의 이탈 권력(exit power) 강화로 국민국가의 정책 자율성과 민주주의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세계화에는 자유무역의 세계화와 금융세계화 두 가지가 혼재해 있다. 1950년대부터 시작한 자유무역 세계화는 서구 복지국가의 경제적 토대였던 1950~1960년대 황금기를 가능하게 했고, 한국, 대만,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성공을 가져왔다.

이에 반해 1980년대부터 본격화한 금융세계화의 성공 사례는 자유무역처럼 뚜렷하지 않다. 중국, 인도가 제2차 세계화 시대의 성공 사례인 것은 분명하지만, 금융자유화·금융세계화 정책으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유무역과 금융세계화는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실증연구들을 종합하면 금융세계화의 부작용이 무역자유화의 부작용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더라도 금융자유화·금융세계화 정책은 무역자유화 정책보다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차대전 이후 서구 선진국들은 복지제도 확립으로 자유무역의 충격을 흡수하고 소득안정이 보장되고 난 뒤에 통상 개방에 유연해질 수 있었다. 복지선진국인 유럽이 복지가 상대적으로 뒤쳐진 일본·미국에 비해 훨씬 더 개방적이고 수출의존적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일수록 정부가 규모가 큰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자유무역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대립적으로만 보지 말고, 잘 기능하는 복지제도는 외부 충격을 흡수해 세계화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복지의 적극적 측면을 수용·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국회 산업예산분석팀장·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박주철

광주에 국립 과학관 설립을

한국우주소년단은 1989년 창단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비영리 청소년단체로 미래의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주를 통한 평화'를 목표로 전 세계 30여 회원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청소년단체이며, 지난 4월8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주인 이소연이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호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과학실험을 하도록 우주인을 배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단체다.

한국우주소년단 광주지부는 지난 1990년 6월 창단돼 내년이면 20돌을 맞는다.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같은 다른 청소년단체에 비해서는 연륜이 짧지만 우주 및 과학과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이나 단원들의 열성은 뒤지지 않는다. 과학실험, 로봇, 로켓, 모형 항공기 만들기 등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 우주소년단은 1990년 15개 학교로 시작해 현재 초등학교 90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2곳 등 100여곳의 초·중·고등학교에 조직돼 있다.

우주소년단의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우주 과학재능대회를 개최하고, 과학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자체적으로 꾸준히 현장학습과 경진대회 등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학습에서는 천문대, 공룡박물관, 함평 나비생태공원, 대덕 과학연구단지, 장보고 유적지 등을 찾아 단원들이 과학과 자연에 친숙해지도록 하고 있다.

올 5월 말에는 광주시가 주관하는 전국 청소년박람회에 광주 출신으로 우리나라 첫 우주인이 된 이소연 씨를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주소년단에서 방학 때마다 실시하는 국제 우주과학캠프도 다른 단체의 해외연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다. 지난 8월에는 단원과 학부모 등 140여 명이 일본 규슈의 청소년과학관과 자연사박물관, 스페이스캠프 등을 다녀왔다. 해외의 우주나 과학 관련 박물관과 과학관 등을 가보면 국내 실정이 비교돼 항상 많은 아쉬움을 안고 돌아온다.

이런 점에서 광주지역 국립과학관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또 정부와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점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과학과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요즘 학부모들이 과학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영재'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과학영재 시험에 관심이 쏠려 있다. 씁쓸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관련 정부 부처에도 이공계 출신이 많지 않은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 주변국만 보더라도 초등학교부터 과학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계 출신자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한국우주소년단 광주전남본부 사무국장〉

찰칵! 동물세상

왜가리의 홀로서기

학만 한 다리로 서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물새들이 한 다리로 설 수 있다.

한 다리로 서는 것은 체온을 보존하기 위함도 있고 물에 덜 젖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아무리 물새라지만 역시 몸에 물기가 젖어있는 것은 체온저하나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도 서 있을 때 짝다리나 지겟다리가 오히려 편하고 균형잡기 쉬운 것처럼 물새들도 한 다리로 쉴 때가 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체구만 보면 많은 물새들이 날개가 커서 무게가 상당히 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물새들은 고니같은 큰 물새조차도 대부분 5kg이상을 넘지 않는다. 대부분의 물새들의 큰 부피는 날개와 치밀한 깃털들이 차지하고 있다. 나는데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타조 같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대한 새들은 아무리 날개가 잘 발달하더라도 결국 몸무게 때문에 날 수가 없다. 인간의 오랜 꿈인 스스로 나는 것 역시 몸무게를 줄이기 전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왜가리는 우리나라 물새 중에서 가장 잘 환경에 잘 적응한 물새로서 원래 여름 철새였지만 이제는 어느 계절이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세가 되었다. 광주천의 제왕도 이 왜가리들이다. 황새나 고니 같이 큰 새들이 여객기라면 왜가리나 해오라기는 전투기에 가깝다. 그 만큼 빠르고 날렵하며 공격적이다. 더불어 어느 환경에서든 전투처럼 살아남는다.

이같이 한 종이 생태계의 한 위치에 일방적으로 몰리는 현상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심 하천 생태계는 이 왜가리들이 있어 균형을 유지한다. 자연은 간섭 않고 가만히 놓아두면 언젠가 반드시 질서를 회복한다. 그 질서회복의 핵심 안에 바로 이 왜가리가 서 있다.

◇ 최 종 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사 설

'균특예산' 삭감 지방균형발전 포기하나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확정된 '2008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을 삭감,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한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공공부문 개혁을 명분으로 지방 지원예산에까지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 균특예산 7조6천억원 가운데 1% 수준인 728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균특회계 예산의 삭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각각 800억원, 5천100억원 수준인 광주시와 전남도의 균특예산 삭감도 불가피해졌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광주·전남의 각종 현안사업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균특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공공부문의 개혁과 구조조정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이 각종 폐해와 부작용을 낳고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돼 온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균특예산의 일방적인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경제는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균특예산을 무 자르듯 삭감한다면 지방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균특예산은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지방 지원 예산을 하나로 묶어 2005년부터 편성한 예산이다. 지방의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문화·관광시설 확보, 지역 인력양성, 지역 전략 산업 및 복지사업 등에 배정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크게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지원인 것이다.

정부는 균특예산의 삭감을 재고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이어 지방 지원예산마저 줄이는 것은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제 살리기는 지방 살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옳다.

U대회 광주 실사단에 '감동'을 안겨주자

광주시가 2013 하계 U대회 실사단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실사 대비 전략을 확정했다. 시는 경기장 시설과 선수촌 조성 계획 등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도시의 역량을 집중 홍보하고 뜨거운 유치 열기로 실사단에게 '감동'을 안겨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실사는 매우 중요하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 6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5월 1일부터 4일까지 광주의 도시환경과 체육시설 등을 점검하며 종합적 개최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개최지는 5월 31일 FISU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번 실사가 U대회 유치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인 셈이다.

경쟁도시는 스페인 비고와 러시아 카잔이다. 세번째 유치전에 나선 카잔이 라이벌로 꼽히지만 유치 가능성은 충분하다. 광주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와 세계여성포럼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인권·평화의 도시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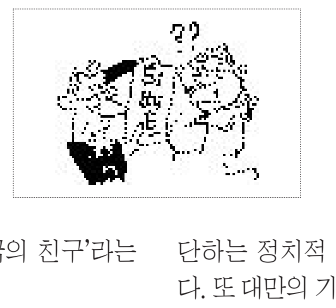
관건은 유치 열기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보여준 관심은 기대 이상이었다. U대회 유치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게 참여했고 유치 기원행사가 잇달아 열리면서 일반인은 물론 초·중·고 및 대학생까지 적극 동참하고 있다.

광주시가 비중을 두고 있는 실사 대비전략도 시민 환영단이다. 실사단이 광주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출국할 때까지 공항과 5·18국립묘지, 경기장, 시청 등에 10만명의 시민 환영단을 배치해 '감동의 물결'을 연출할 계획이다. 옛 전남도청 앞에서는 유치 기원 시민 대축제도 열린다.

우리에겐 2012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에 성공한 소중한 경험이 있다. 시민의 대대적인 열기는 실사단의 평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U대회 유치가 광주의 최대 현안인 만큼 시민 모두가 환영 물결에 동참해 실사단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無等鼓

'쟁우'와 '실용'



어느 사회나 조직이건 노(No)라고 말하는 사람, 즉 바른말을 하는 부하 직원이나 친구는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나 정의감이 충만하지만 까칠한 스타일 때문에 사람 됨됨이는 물론 능력까지도 평가절하된다. 이와 달리 예스맨이 능력에 비해 과한 대접을 받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가 지난 9일 중국을 방문, 티베트사태와 관련 중국정부를 비판하는 쓴소리를 했다. "티베트에는 인권문제가 존재한다"며 티베트 문제에 대한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일러 쟁우(諍友)라고 했다. 상대에겐 아프지만 잘못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중국의 친구'라는 의미다.

중국어를 원어민 수준 이상으로 구사하는 러드 총리는, 친구나 임금의 잘못을 바른말로 충고하는 벗이나 신하라는 뜻으로, 중국의 오래된 처세서 지전(智典)에 나오는 쟁우(諍友), 쟁신(諍臣)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연하지만, 중국정부와 언론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쟁우의 조언을 뒤로한 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발길을 티베트가 아닌 하이난다오 보아오로 돌려 샤오완창 대만 부총통 당선인을 만났다. 내전후 59년만의 최고위급간 역사적 회동이었다. 후 주석은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공식대화도 완전 두절된 대만에 손을 내밀어 샤오 당선인을 국가원수급으로 예우했다. 시종 '선생'으로 호칭했고 만찬에서도 각국 정상과 나란히 헤드테이블에 앉도록 극진히 대접했다.

이는 친중국 성향의 대만 새정부를 통해 분리독립 움직임을 차단하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려는 의지다. 또 대만의 기술력과 중국의 자본, 노동력을 결합한 양안 경제협력으로 얻어질 중국경제의 실익이 우선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익 우선 실용외교를 기대해본다. /기현호 경제부장 kihh@

서민생활 직결 동네 상점들 신용카드 왜 안 받나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곱슬머리여서 석달에 한 번씩 파마를 해준다. 그런데 파마 가격이 장난이 아니다. 무려 6만원이나 한다. 어른같으면 적당히 참으며 생활하라고 하겠지만 어린 딸이 불편을 호소하니 어려운 살림이라도 파마를 안해줄 수 없다.

컷트할 때야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아 그냥 현금으로 냈다지만 6만원이나 하는 파마는 연말정산때 도움될까 싶어 신용카드를 냈더니 미장원에서 받지 않았다. 다음부터는 신용카드를 받는 곳에 가서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집 근처 몇 군데를 돌아봤지만 대부분 카드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대형 마트에 있는 미장원까지 데리고 갈수 없어서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집 근처에서 현금을 주고 하고 있자니 은근히 속상하다.

요즘은 몇 천원만 사용해도 신용카드를 받아주는데 미장원은 왜 버티는지 알 수 없다. 아이의 머리를 맡기면서 매번 왜 신용카드 안받느냐고 따지기도 어려워서 참지만 우리 주변에서 생필품 또는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데도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다. 미장원, 찜질방, 동네 슈퍼마켓과 과일상회, PC수리점 등등…. 장삿속만 생각할게 아니라 지킬건 지켜가면서 영업했으면 한다. 세무당국의 지도·단속도 촉구한다.

▲임윤빈·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불법 수입농산물 공매 말고 전량 소각해야

불법 수입농산물의 공매는 농민을 죽이는 제도다. 예전부터 농민들은 이를 금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따리 장사꾼이나 밀수로 들여오다 적발된 농산물의 경우 정부는 이 농산물을 공매를 해서 시중에 유통시킨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매 농산물은 가격이 저렴하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 농산물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농민들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공매로 싸게 사들인 수입쌀을 포대갈이를 통해 감쪽같이 국산으로 둔갑시킨다고 한다. 이 쌀이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들은 수입쌀인 줄도 모르는 채 사먹는다는 것이다. 수입쌀을 수입쌀로 내 놓으면 소비 문제야 소비자들의 몫이겠지만 우리 쌀과 은밀히 섞어 유통돼다보니 소비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채 수입쌀을 식탁에 올려놓는 것이다.

힘들여 농사 지은 농민들은 힘이 빠지는 일이고 소비자들은 정부에 속고 농락당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FTA도 견디며 꿋꿋이 참고 농사짓고 있다. 농민들이 농사의욕을 잃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시급히 해줬으면 한다. 밀수로 적발된 농수산물은 공매로 시중에 유통시킬 것이 아니라 전량 소각했으면 한다.

▲이다웅·여수시 평려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